

31 침례, 구원받은 후 첫 순종

Chapter

롬 6:1~13, 벵전 3:21

찬송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144장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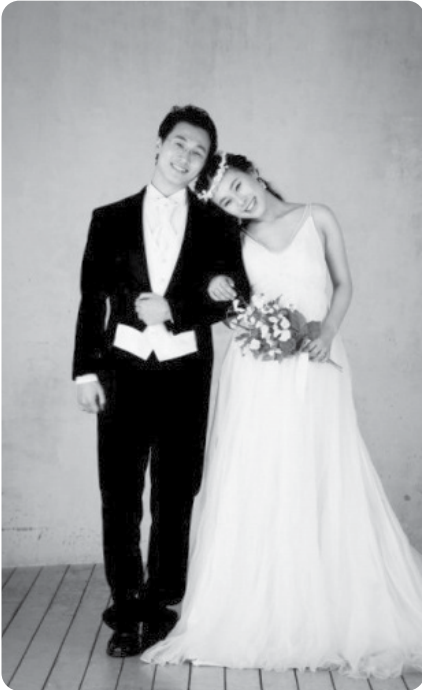


말씀

1.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 대한 첫 번째 순종임을 압니다.
2. 침례를 받는 이유와 의미를 압니다.

마음 열기

1. 결혼식을 통해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2.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꼭 결혼식을 할까요? 결혼식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1)

2)

3)

4)



말씀을 이해하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종으로 주님은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둘째,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뜻하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살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순종의 표시입니다.

'침례'에 해당하는 영어인 '뱃타이즈'(baptize)는 헬라의 '뱃티조'(baptizo)를 음역한 것으로, 그 뜻은 '담그다, 잠기다, 물 속에 넣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올바른 방법은 침례를 받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 속에 담그고 잠기는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 3:21)

There is also an antitype which now saves us baptism (not the removal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1Pe 3:21)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롬 6:3~4)

(고전 12:12~13)

(마 28:18~20)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사도행전 8장 35~38절과 10장 44~48절을 읽은 후 침례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2.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종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없거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은 침례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의 마음을 떠올려 기록해 봅시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언제, 어떻게 받고 싶은지를 기도한 후 기록해 봅시다.
3. 침례는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임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침례 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고,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도움을 간구해 봅시다.
4. 성경은 침례를 명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식 세례나 유아 세례가 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약식 세례나 유아 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편화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분반시간에 토의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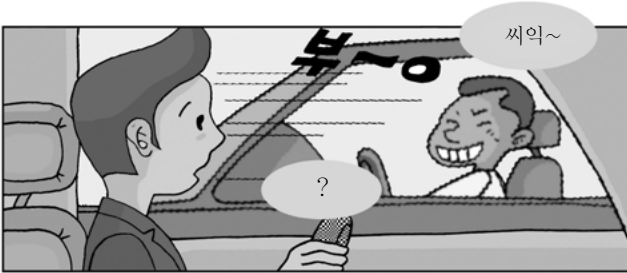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내가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인생길



자판기가 고장 나면 ‘고장’이라고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알려 주지 않고 골탕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길은 잘못 가면 돌아 나올 수 있지만 인생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없이 길을 알려 줍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인생길, 그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침례에 관한 이야기

하나, 침례에서 세례로 바뀌게 된 사연

우리나라에서는 침례(Baptism)를 ‘세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aptism’은 ‘물에 잠기다’, ‘물에 담그다’라는 뜻으로 ‘침례’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침례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주교에서도 침례탕을 만들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었는데,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나 노인은 침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물 몇 방울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 두 가지를 같이 행해 오다가, 1311년 라벤나 종교 회의 때 침례와 세례 중에서 세례만을 정식 예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천주교에서는 계속 약식 세례를 행해 왔으며, 대부분의 개신교 역시 이러한 잘못된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목사님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벌써 수년 전에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명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와 같은 교회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